



■ 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식민적 상처와 탈식민적 전환



원제: The Idea of Latin America (2005)

윌터 D. 미놀로 (지은이) | 김은중 (옮긴이)

출판사: 그린비

출간일: 2010-05-20

ISBN(13): 9788976827371

양장본 | 304쪽 | 150*210mm

라틴아메리카라는 대륙이 서구인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식민화되었는지를 밝혀냄으로써 근대성의 이면에 은폐되어 있는 식민성 이데올로기를 발굴해 낸 책이다. ‘수탈의 현실’을 직접 그리는 대신 서구 기독교의 인식론이나 인종주의의 토대를 두고 있는 ‘인식적 기반’을 다룸으로써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탈)식민성과 세계질서에 관한 역사적 통찰을 제공한다.

나아가 이 책은 16세기에 시작된 이래로 모습을 바꾸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전 지구적 식민성의 논리에서 볼 때 (라틴아메리카와) 유사한 입장에 놓여 있는 한국 사회에 일제 식민 시기와 관련된 좁은 의미의 식민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식민성 논의를 추동할 것이다.

부적



원제: Amuleto (1999)

로베르토 볼라노 (지은이) | 김현균 (옮긴이)

출판사: 열린책들

출간일: 2010-0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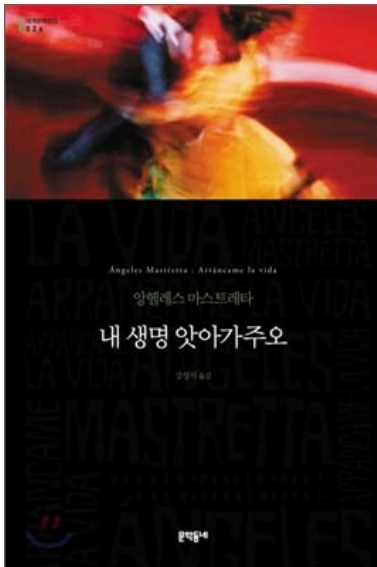
ISBN(13): 9788932910468

양장본 | 200쪽 | 128*188mm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시한폭탄’ 로베르토 볼라노의 장편소설로 열린 책들이 『칠레의 밤』에 이어 펴내는 볼라노의 두 번째 소설로 1968년 멕시코의 트라텔롤코에서 시작되어 라틴아메리카의 청년 세대와 시적 공간을 희생시킨 공포를 다룬 범죄 이야기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의 <다시 쓰기> 전략이 사용된 작품으로, 그의 대표작 『야만스러운 탐정들』에서 부차적 인물로 등장했던 아욱실리오 라쿠투레의 전기를 다룬 10쪽 분량의 취해 14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로 확장시킨 것이 『부적』이다.

작가는 트라텔롤코 학살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소재로 1960-7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 창궐했던 정치적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아욱실리오의 꿈과 환각 속에서 사랑의 이상과 죽음의 운명을 안고 공포를 향해 행진하는 한 세대를 재창조되며, 라틴 아메리카 악천후의 지리적 상징인 환영적인 계곡은 고뇌와 죽음의 이미지를 동반한다. 피비린내 나는 라틴 아메리카의 공포와 억압의 장면들이 심연을 향해 행진하는 무수한 젊은이들의 죽음과 노래로 뒤덮여 버린다. 그 젊은이들의 노래가 바로 우리의 '부적'인 것이다.

■ 내 생명 앓아가주오



원제: Arrancame la vida (1998)

앙헬레스 마스트레타 (지은이) | 강성식 (옮긴이)

출판사: 문학동네

출간일: 2010-03-15

ISBN(13): 9788954610049

양장본 | 404쪽 | 148*210mm

라틴아메리카의 노벨 문학상이라 불리는 로물로 가예고스상 수상 작가 앙헬레스 마스트레타의 대표작이다. 멕시코 혁명기를 배경으로, 꿈 많고 당찬 열다섯

소녀가 권모술수와 야심으로 가득 찬 정치꾼과 결혼해 겪는 굴곡 많은 삶의 여정을 그려냈다. 현대 멕시코 사회를 변혁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온갖 병폐와 부조리를 낳기도 했던 멕시코 혁명기와 그 이후의 격동기에 대해 기존의 남성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혁명의 폭력성과 타락상을 여성의 관점으로 재조명하는 작품이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경력 날조와 살인 청부도 마다않는 정치꾼 안드레스는 권위와 억압, 명령을 상징하는 남성상이다. 그런 남편의 권위에 짓눌리며 현실을 자각해가는 카탈리나는, 그러나 남편의 억압적인 언행에 맞서며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피력하는 등, 순종을 미덕으로 여기던 관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카탈리나의 삶을 통해 현대 멕시코 사회를 변혁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온갖 병폐와 부조리를 낳기도 했던 멕시코 혁명기와 그 이후의 격동기에 대해 남성적 시각에 입각한 서술과는 차별된 관점의 서술을 시도한다.

■ 어느 도망친 노예의 일생



원제: Biografía de un cimarrón (1998)

미겔 바르넷 (지은이) | 박수경·조혜진 (옮긴이)

출판사: 인천문화재단

출간일: 2010-04-21

ISBN(13): 9788992678261

규격외 | 275쪽 | 153*224mm

에스테반 몬테호라는 실존 인물과의 인터뷰를 통해 쿠바 ‘증언문학’의 선구적 작품으로 평가받는 『어느 도망친 노예의 일생』은, 현재 쿠바 문인과 예술인 연합(UNEAC) 의회장으로 활동 중인 쿠바의 대표작가 미겔 바르넷(Miguel Barnet)이 1966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한 인물의 개인사적 증언과 시선으로부터 보다 생생한 사회·역사적 맥락을 찾아가는 ‘증언문학’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환상문학’의 현실적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이 작품은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노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혹독한 노예 생활과 그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독립전쟁에 이르기까지 에스테반 몬테호의 증언은 작가의 손을 거쳐 더욱 열정적인 목소리로 다가온다. 더욱이 인위적인 서사적 장치보다 증언자 본래의 목소리를 살림으로써 문학과 현실의 근간은 물론, 더불어 그로 인한 환상적 분위기까지 획득하고 있다는 점은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일 것이다. 작가 미겔 바르넷의 명성을 세계적으로 알린 『어느 도망친 노예의 일생』은 이미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서구권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에서 출간되었으며, 유명 작곡가들에 의해 오페라로 공연되기도 했다.